

생활과 윤리 시작하기 전에

### 독해 zola 연습 시리즈

[범위] 전범위

[출처] 『2020년 ebs 수능 특강』 기본 문제 중에서

#### [기본 활용법]

1. 1회를 10문제로 끊어서 풀어본다. 이는 수능 생운에서 독해 문제가 10문제 내외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 10문제를 푸는데 최소 7분 이상 사용한다. 이는 독해 문제를 빨리 풀면서 제시문이나 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10문제를 푸는데 최대 14분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독해 문제에 지나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하루에 2회 이상 풀지 않는다. 이는 매일 달라지는 컨디션에 자신의 독해력 좌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5. 주의할 점은 매회 시간을 한 번에 쭉욱 투자하는 것이다. 중간에 끊어가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 예를 들어 1~5번까지 5분 안에 풀고, 나중에 6~10번까지 5분 안에 푸는 방식은 하지 말길 바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10문제 정도가 수능에서 출제되는 독해의 한 세트(set)이다. 이제는 숨쉬는 것도 수능형에 맞추어야 한다!!!

[1회]

1)

**0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이 가장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동물을 그저 우리가 먹을 거리로만 대우해도 좋을까요? 윤리학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지녀야 하며, 민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숙고하여 의견을 내놓아야 합니다.



【 보기 】

- ㄱ. 윤리학은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행위 지침을 연구해야 한다.
- ㄴ. 윤리학은 과학과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ㄷ. 윤리학은 현대인의 소비 행태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 ㄹ. 윤리학은 윤리적 문제가 학문 탐구의 주제로 성립 가능 한지를 주된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생각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평하고 판단하는 숙련된 기술이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좋은 근거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도 틀릴 수 있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꿀 거야.'라고 늘 마음속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아야 한다.

- ① 사실 판단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②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 ③ 권위자의 명령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열린 태도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⑤ 개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사회적 통용 가치에 따르는 것이다.

3)

**0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에 대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탐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도덕 판단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한 도덕 판단만이 타당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역지사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고수하기 위한 이론적 정당화에 몰두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도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4)

**08** 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버릇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을 독실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한 것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행한 것을 후회하고도 저녁이면 벌써 다시 그렇게 한다. 마음을 깨끗이 씻어 털끝만한 남은 줄기마저 없게 하고, 깊이 반성하여 이 마음으로 하여금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한 점이라도 없게 한 뒤라야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말할 수 있다.

【 보기 】

- 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 ㄷ. 잘못된 버릇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론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 ㄹ. 자신의 언행을 살펴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06** (가)의 단계로 (나)의 사례를 윤리적으로 탐구할 때, 각 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발생한 문제의 윤리적 쟁점 및 원인을 검토한다.
	↓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제시된 해결책에 대한 토론으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	탐구 과정을 통해 달라진 생각에 대해 반성하고 정리한다.
↓		
(나)	의사 A는 소생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B의 연명 치료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 연명 치료 중단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② ㉡: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본다.
- ③ ㉢: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 ④ ㉣: 연명 치료 중단 여부는 윤리학적 접근이 아닌 의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한다.
- ⑤ ㉤: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6)

**07**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 중에서 고른 것은?

**인공 임신 중절 카페 게시판**

갑: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저는 태아가 여성의 신체의 일부이므로, 여성은 자신의 몸의 일부인 태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도 인간이에요. .... ㉠
- 태아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가 있는 존재예요. .... ㉡
-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 ㉢
- 태아는 무고한 인간인데 무고한 인간을 해쳐서는 안 돼요. ... ㉣
- 태아도 잠재적 인간이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은 살인과 같아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02** 갑이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 배아는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성인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배아는 존엄한 존재이므로 실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을: 인간 배아를 출생 이후의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로 볼 수는 없다.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① 배아 실험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
- ②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존재이므로 생명권이 있다.
- ③ 배아는 일정 단계를 지날 때까지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 ④ 배아는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닌다.
- ⑤ 배아가 실험 과정에서 파괴되어도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8)

**02** 다음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성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성의 자기 결정을 성적 방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 ① 상대방의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면서 성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인간의 성이 지닌 사회적·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④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의도는 성적 행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⑤ 각 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9)

**0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을: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경우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 보기 】

- ㄱ. 갑은 성이 생식적 가치를 중시할 경우에 정당화된다고 본다.
- ㄴ. 을은 성적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당화된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성의 주된 목적이 출산과 양육의 안정성이라고 본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강제나 기만에 의한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

**0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사회에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모든 직업에서 업종과 직제를 나누어 그들 스스로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전념하여 뛰어난 재능을 연마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비는 학문과 도덕에 통달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농민은 농사에 능통하여 사람들을 먹이고, 공인은 기술에 능통하여 편리한 용기(用器)를 만들어 내고, 상인은 장사에 능통하여 재화를 유통하여 값지게 쓰도록 했다. 이렇듯 전통 사회에서는 직업을 통해 사람들이 ㉠

- ① 자신의 직분과 무관하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나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여러 일을 고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보았다.

[2회]

11)

**0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는 여러 장인들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 ① 자급자족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다.
- ② 통치자와 생산자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 ③ 자신의 사회적 직분에 상응하는 덕을 발휘해야 한다.
- ④ 대인은 육체노동을 통해 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⑤ 장인들의 기술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12)

**04**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기업 역시 공동체의 일부이므로 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전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들의 권익 보장에만 전념해야 한다.

- ① 기업에 이윤 창출 이외의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기업은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기업에 공익 증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기업은 준법 이상의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기업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13)

**05** 다음에서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p><b>제조(목적)</b>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이해충돌 방지 의무)</b>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 ① 자신이 지닌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한다.
- ② 공사를 구별하지 말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③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공무상 취득한 정보는 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 ⑤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14)

**06**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범ભ이나 의학처럼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전문직의 특징은 무엇 일까요?

학생: 전문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또 업무 수행에 자율성을 지닙니다.

교사: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학생:  ㉠

【 보기 】

- 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 ㄴ.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 ㄷ.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ㄹ.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5)

**07**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군자는 작은 일은 잘 못해도 큰일은 맡아 할 수 있고, 소인은 큰일은 감당 못해도 작은 일은 잘할 수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을: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뽑아 쓰고, 덕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 힘든 일은 누구나 싫어하고 이익은 누구나 좋아하므로 예로써 일을 나누어야 다툼이 없을 것이다.

【 보기 】

- ㄱ. 주어진 사회적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ㄴ.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 ㄷ. 개인의 덕에 따른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ㄹ. 군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통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07** 학생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여러분의 모듬이 우수 활동 모듬으로 선발되어 도서 상품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갑: 모든 모듬원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모듬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 모듬원들 중 상황이 열악해서 상품권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갑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의 분배 방식은 모듬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③ 병은 주어진 혜택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의 분배 방식은 을에 비해 분배의 양을 정하기가 어렵다.
- ⑤ 병의 분배 방식은 갑에 비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를 배려하기 어렵다.

17)

**0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 창출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전통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주로 혈통과 신분에서 나왔다. 그러나 동양의 고서(古書)들을 보면 덕을 귀하게 여기는 어진 정치를 할 것을 강조하였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고도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은 고금(古金)을 막론하고 ㉠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
- ② 하늘이 통치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발생한다
- ③ 국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정당화된다
- ④ 국가가 국민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당화된다
- ⑤ 정치적 존재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18)

**0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절차와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략)... 우리에게서 천연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건강의 방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방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① 과학 기술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는 번영을 누릴 수 있다.
- ③ 과학 기술에 바탕을 둔 이상 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 ④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⑤ 과학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강조보다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우선된다.

19)

**02**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 ①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가?
- ② 과학 기술을 통해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하는가?
- ③ 현세대에게 자연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윤리적인가?
- ④ 세대 간 호혜적 권리와 의무를 통해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 ⑤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에 가져올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20)

**03**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벤담의 판옵티콘을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닌, 한 명의 권력자가 대중을 감시하는 현대 감시 체제의 원형으로 소개한다. 푸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항상 사람들을 감시하는 권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감시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결국 그것이 감시의 효과를 지속시킨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정보 사회에서 정보 감시의 위험성과 관련해 '전자 판옵티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판옵티콘 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

【 보기 】

- 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ㄴ. 대중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창설해야 한다.
- ㄷ. 권력 집단의 정보 독점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ㄹ. 정보에 대한 검열을 통해 개인의 일탈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회]

21)

**0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을 확보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을: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연구가 진리임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① 갑: 과학 기술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② 갑: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개발 과정과 연구 결과물의 활용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 ③ 을: 과학 기술자는 진리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을: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갑, 을: 과학 기술자는 내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2)

**06** 다음 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의 과학 기술은 과학자들의 협동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 과학자의 개별적 책임만으로는 과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도 과학 기술이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보기 】

- ㄱ. 과학 기술 연구 과정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ㄴ. 과학 기술의 부작용은 과학 기술자의 독립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 ㄷ. 과학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 ㄹ. 과학 기술 연구·개발의 평가와 논의 과정에서 과학자의 독점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

**07**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과학자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도 사회도 과학적 발명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가령 농산물을 해충에서 보호할 수 있는 화학성분을 만들어 낸 화학자는 곤충 세계에 개입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각 개인에게 자신의 목표를 좀 더 커다란 시각에서 봄으로써 작은 집단의 이익을 구하다가 분별없이 커다란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과학의 진보가 만들어 내는 커다란 연관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관성은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연구가 공동체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④ 자신의 과학적 발명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예측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4)

**02**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정보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없다.

을: 모든 정보 창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구성된 공공재이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보기 】

- ㄱ. 갑: 정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ㄴ. 갑: 정보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
- ㄷ. 을: 사회적 산물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ㄹ. 갑, 을: 정보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5)

**01**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① 개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② 개인 간의 정보 처리 능력 차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 ③ 정보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
- ④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⑤ 개인에게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6)

**04**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보 사회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보 사회에서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기술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간이 그러한 기술 체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이 약화되고, 기술적 통제가 안 될 경우 속수무책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기**

- ㄱ. 정보의 확산으로 사회 문제의 책임 규명이 명확하게 된다.
- ㄴ. 정보 접근과 처리 능력의 차이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 ㄷ. 기술에 대한 의존성 증가로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 ㄹ.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기술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7)

**05** 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셜 미디어처럼 누구나 정보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 정보의 확산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며, 허위 정보를 근절시킨다는 식의 접근은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 정책을 최소화하고, 허위 정보 규제보다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 형성의 논리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개인적·사회적 노력을 통해 허위 정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 ② 허위 정보 확산 방지는 정보 생산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 ③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 ④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들이 정보 전달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⑤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매체 이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8)

**06**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표현의 자유 행사는 타인의 사생활 노출이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은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 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 ②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통제와 감시의 사회를 확산시킬 수 있다
- ④ 일방향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시킬 수 있다
- ⑤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29)

**08**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공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정의, 공동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 입각한 윤리 규범을 정보 사회 윤리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①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전통적 윤리를 버리고 정보 사회에 맞는 새로운 윤리를 모색해야 한다.
- ③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보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 ④ 이전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윤리에서 다른 측면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윤리는 각 사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사회를 포괄하는 도덕 원칙을 마련할 수 없다.

30)

**0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A의 특징과 실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A: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

㉡ 학생 답안  
A는 ㉠ 개발과 보전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식으로, ㉢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지는 것이다.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해야 하고, ㉣ 국가적으로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며, ㉤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합의와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5)

**0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 대중문화는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을: 그렇습니다. 대중문화가 대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자율적 규제는 결국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대중문화를 누리려고 이에 참여하며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율적 규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게 되어 오히려 대중문화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① 대중문화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 ② 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대중문화를 위축시키는가?
- ③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는 강제성을 가져야 하는가?
- ④ 대중문화 소비자보다 생산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 ⑤ 대중문화에 대한 자율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36)

**0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복제 기술의 발달로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예술 생산에서 진품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로서 아우라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바로 그 순간 예술의 모든 사회적 기능 또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의 예술이 그것이 지니는 유일무이한 가치, 즉 아우라에 바탕을 두었다면, 이제 예술은 다른 실천, 즉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됩니다. 그동안 숭배되고 찬양되던 예술은 이제 다함께 논의하고 비평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소수만이 누리던 예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 【 보기 】
- ㄱ. 대량 복제로 예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 ㄴ.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의 수용 방식이 변화된다.
  - ㄷ. 예술 작품의 유일무이함이 강조될수록 감상자의 비판 의식이 강화된다.
  - ㄹ. 복제 기술의 발달은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7)

**01**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다. 건축함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죽을 자로서 매일 매일 거주한다는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실존적 삶 전체를 돌보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건축함인 것이다. 죽을 자로서 인간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계 내에 거주한다는 뜻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와 이를 더욱 더 가치 있고 본래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함이 늘 함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거주함은 인간의 사유함과 분리될 수 없는가?
- ② 거주함은 건축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 ③ 건축함은 근원적으로 거주함의 의미를 지니는가?
- ④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가?
- ⑤ 거주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38)

**02**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되려는 동기를 주는 것은 돌봄, 즉 그 특수한 관계 속에 있으려는 우리의 열망이다. 우리는 돌봄 관계 속에 남아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상을 고양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문제 상황>

바나나를 좋아하여 자주 구입하던 A는 뉴스를 보고 거대 기업의 횡포로 바나나 재배에 맘 흡린 노동자들에게는 극히 적은 임금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A는 바나나를 살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다.

- ① 당신의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을 계산해 판단하세요.
- ② 노동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 ③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구입 여부를 선택하세요.
- ④ 다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에 따라 행위하세요.
- ⑤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정언 명령에 따라 행동하세요.

39)

**0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는 과학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됨이 필요하다. 인간됨의 윤리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적 대우를 해야 하며, 당신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간됨의 윤리는 종교와 무종교인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윤리의 기초가 되며, 이러한 윤리는 종교 간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종교보다 과학이 중요하다.
- ② 인간됨의 윤리는 책임이 아닌 권리만을 강조한다.
- ③ 인간적 대우의 전제 조건은 종교에 대한 귀의이다.
- ④ 종교를 통해서만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종교인과 무종교인 모두에 대한 존중이 보편 윤리의 핵심이다.

40)

**08**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는 초대의 환대가 아닌 방문의 환대가 되어야 한다. 초대의 환대는 권력을 가진 자가 이방인을 초대하는 것으로, 환대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 권력을 가진 자의 이해와 양보, 자비와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환대이다. 이에 비해 방문의 환대는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도착한 모든 사람에게 사전에 미리 개방되어 있는 환대이다. 이는 나의 집을 개방할 뿐 아니라 알지 못했던 타자에게 나의 집을 제공하는 환대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환대이다.

- ① 방문의 환대보다 초대의 환대가 바람직한가?
-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타자만 환대해야 하는가?
- ③ 진정한 환대는 권력자의 시혜에서 비롯되는가?
- ④ 낯선 사람의 방문에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가?
- ⑤ 조건적 환대보다 절대적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5회]

41)

**01**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해 행해지는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혁신하는 데 필요한 독창적인 사고력이 고취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집단의 의사 결정 참여자들에게 개방적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유도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외부 집단과 갈등으로 위협을 받게 되면 집단 내부에는 소속감이 형성되어 응집력이 강화된다.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은 갈등 해결을 위해 과거의 활동을 진지하게 돌아봄으로써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오히려 갈등이 전혀 없을 때 구성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다.

- ① 집단에 갈등이 없을 때 비로소 집단이 발전할 수 있다.
- ② 갈등은 항상 역기능을 일으키므로 신속한 제거의 대상이다.
- ③ 갈등 해결 과정에서 상호 비판은 창의력 발휘를 억제한다.
- ④ 집단 간의 갈등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
- ⑤ 갈등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해 개인과 집단의 도덕성을 제고시킨다.

42)

**0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투자적 성격의 단기적 비용일 뿐이고, 통일로 얻게 될 유무형의 이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결코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통일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은 통일 비용이 비록 단기적인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그 비용이 막대하며 이에 비해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은 적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통일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통일 비용은 한시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임을 모르고 있다
- ③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 ④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소모적 비용임을 모르고 있다
- ⑤ 통일 편익이 통일 후에 단기적으로 발생함을 모르고 있다

43)

**04**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

독일 통일 사례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독일은 통일 전 많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동독 주민들은 정신적 혼란과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서독 주민들은 실업과 조세 부담률의 증가로 동독 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 영토와 체제의 통일을 넘어 심리적·문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후 나타날 심리적 측면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통일 역량을 충실히 키워 나가야만 한다.

- ① 내적 통합보다 외형적 통합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 ②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흡수 통일을 지향해야
- ③ 내면적·정신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 ④ 체제와 영토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국력을 강화해야
- ⑤ 통일 전 교류·협력은 통일에 기여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44)

**0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견해에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적은 것을 믿어 많은 것을 비방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나)	○○ 회사는 임금 인상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 측과 노동자 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 ① 노사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 ② 회사 측의 입장을 노동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 ③ 다수결의 논리를 사용하여 시비(是非)를 가려야 한다.
- ④ 자신만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 ⑤ 노사 양측 중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름을 깨달아야 한다.

45)

**0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지닌 남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의 체제를 지닌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교적 쉬운 사회·경제·문화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될 때 남북한 간의 신뢰가 쌓여 정치 분야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을: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분야에서 일괄적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꼭 필요한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될 것이다.

- ① 통일 한국은 1국가 2체제의 형태가 바람직한가?
- ②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은 통일에 기여하는가?
- ③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혼란이 최소화되는가?
- ④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 ⑤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46)

**0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진국은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에 비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경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선진국뿐이며,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계화가 지구촌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로 인해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부가 증진되고, 국가 간 부의 불평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  고 생각한다.

- ① 세계화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세계화가 후진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세계화가 국가 간의 교류를 촉진시킴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세계화가 세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킴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세계화가 선진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킴을 모르고 있다

----열공+즐공=대박!!!!----

zola 답

- 1) 1
- 2) 5
- 3) 3
- 4) 2
- 5) 4
- 6) 3
- 7) 2
- 8) 4
- 9) 2
- 10) 3
- 11) 3
- 12) 1
- 13) 3
- 14) 3
- 15) 2
- 16) 2
- 17) 3
- 18) 2
- 19) 1
- 20) 2
- 21) 2
- 22) 2
- 23) 2
- 24) 2
- 25) 5
- 26) 3
- 27) 5
- 28) 1
- 29) 3
- 30) 2
- 31) 5
- 32) 2
- 33) 2
- 34) 3
- 35) 3
- 36) 4
- 37) 5
- 38) 2
- 39) 5
- 40) 5
- 41) 5
- 42) 3
- 43) 3
- 44) 4
- 45) 4
- 46) 4